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현황

1. 남북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 촉구

- 장관급 회담(8-14차) 등 각종·각급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및 다자회담 호응 촉구
 - △ 제13차 장관급회담(2.3-6):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 △ 제14차 장관급회담(5.4-7):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
- 북한의 6자회담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남북대화 채널의 유용성이 확인
 - △ 리자오싱, 다이빙궈 등 중국 외교부 인사의 통일부 방문
 - △ Kelly 방한(2.2)시 “장관급회담이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뒷받침”
 - △ 장관급회담 종료 후 미·일·중 대사 대상으로 회담결과 브리핑 실시

2. 6자회담 동향

- 제2차 실무그룹회의(W/G, 6.21-22) 및 제3차 6자회담 회담(6.23-26)이 북경에서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 재확인,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초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실무그룹회의를 개최, 이를 통해 동결의 범위, 기간 및 검증방법, 상응 조치에 관한 정의를 하고, 이를 4차회담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동결 범위, 동결 방법, 검증주체, 상응조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참가국간 실질적인 토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제3차 실무그룹회의 및 제4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임.

제3차 6자회담 의장 성명(6.26)

1. 제3차 6자회담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사이에 2004년 6월 23일-26일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주국장, 대한민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연방 알렉산더 알렉세예프 외교부 특사, 미합중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이었다.
3. 제3차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실무그룹 회의가 5월 12일-15일 및 6월 21일-22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실무그룹회의 운영에 관한 개념 문건을 승인하였다.
4. 제3차 회담 중에 참가국들은 건설적·실용적·실질적인 토의를 가졌다. 제2차 회담 의장성명에 반영되어 있는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초기 조치들을 취할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참가국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 의견, 건의들이 모든 참가국들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참가국들은 이러한 제안, 의견, 건의들의 제출을 환영하고, 향후 작업에 유용한 기초가 될 공통 요소

들이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참가국들간의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다는 데에도 유의하였다. 참가국들은 공통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존 차이점을 줄여 나가기 위해 추가 토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7. 참가국들은 제4차 6자회담을 9월말 이전에 북경에서 개최 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일자는 실무그룹의 진행을 고려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개최되어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들로서, 범위, 기간, 검증과 상응조치를 정의 하며, 적절한대로 제4차 회담에 건의를하기로 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대표단들은 중국측이 제3차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끝